 보건복지부	보 도 참 고 자 료				
배 포 일	2020. 4. 5. / (총 10매)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기획팀	팀 장 담 당 자	이 선 영 문 달 해	전 화	044-202-3575 044-202-3808	
중대본 총리실 상황실 기획총괄팀	과 장 담 당 자	노 혜 원 이 승 훈	전 화	044-200-2293 044-200-2295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	과 장 담 당 자	김 국 일 유 정 민	전 화	044-202-2420 044-202-2404	
중앙방역대책본부 의료기관·감염관리팀	과 장 담 당 자	이 형 민 구 현 숙	전 화	043-719-7580 043-719-7581	
중대본 2본부 격리지원반	과 장 담 당 자	이 병 철 신 일 철	전 화	044-205-6511 044-205-6515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

- ▲코로나19 의료인력 감염예방 대책, ▲해외입국 자가격리 이탈자 관리 강화방안 등 -

-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오늘 정세균 본부장(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 부처 및 17개 시·도와 함께 ▲코로나19 의료인력 감염예방 대책, ▲해외입국자 자가격리 내실화 방안 등을 논의하였다.
- ☐ 이 자리에서 정세균 본부장은 일부 자가격리 이탈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행안부·교육부 등 관계기관이 협업 체계를 구축해 상황을 철저히 모니터링하고 관리해 줄 것을 지시하였다.
- 또한, 경영상의 애로를 겪고 있는 기업에 대해 법과 제도가 허용 하는 한도에서 최대한의 지원을 해주고, 특히 고용을 유지하는 문제 에도 지혜를 모아 줄 것을 각 부처에 당부하였다.

- 아울러,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지속과 관련하여 조금 더 개선된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모두가 함께 노력하자고 강조하였다.

1 코로나19 의료인력 감염예방 대책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코로나19 최일선에서 헌신하는 의료인력이 더 안전한 환경에서 더 건강하게 근무할 수 있도록 「감염예방 추진방안」을 마련·시행한다고 밝혔다.

- 현재까지 확인된 의료기관 종사자 중 코로나19에 감염된 사람은 241명으로, 전체 확진자(10,062명)의 2.4%이다.

* 확진자 중 의료인력의 비율은 이탈리아 9.1%, 스페인 15.5%

- 주로 지역사회에서 감염(101명, 41.9%)되었거나, 일반 진료 과정 중 감염(66명, 27.3%)된 사례로 추정된다.

< 의료인력 주요 감염 경로 >

구분		계	의사	간호인력	기타
총 계		241명	25명	190명	26명
의료 관련 감염	확진자 진료	-	-	-	-
	선별진료	3명	1명	2명	-
	일반 진료 중 감염	66명	6명	57명	3명
	원내 집단발생 등	32명	4명	23명	5명
지역사회감염 등		101명	7명	76명	18명
감염경로불명 등		26명	5명	21명	-
조사 중		13명	2명	11명	-

* 4.3일 0시 기준, 4.5일 기준 간호사 2명 확진자 진료 과정 중 감염 노출 의심, 역학조사 중

- 의사, 간호인력,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등 다양한 직역의 의료인력이 현장에 파견되어 확진자 치료 및 방역 활동 지원 중으로,

- 보다 더 안전하고 건강하게 근무할 수 있도록 감염예방 관리를 강화한다.

□ 첫째, 의료기관 진입 관리를 강화한다.

- 가벼운 감기환자, 만성질환자 등은 전화 상담·처방과 대리처방, 화상진료* 등 비대면 진료를 적극 활용토록 할 계획이다.

* 의료기관에 방문한 경우, 의료기관 내 별도 공간에서 의료인 보조 하에 의료기관 본 건물 내 의사와 화상으로 진료하는 방식 등

- 또한, 폐렴, 발열 등 유증상 환자에 대해서는 의료기관에 진입하기 이전에 진단검사가 차질없이 이루어지도록 추진한다.

- 폐렴 증상이 있는 경우, 입원실과 중환자실에 진입하기 이전에 진단검사를 의무 실시하고,
- 응급실에는 사전환자분류소·격리진료구역을 마련하여, 중증도가 높은 응급환자 중 호흡기증상이 있는 경우 격리진료구역에서 응급 처치와 함께 진단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

* 경증 응급환자는 선별진료소로 이동하여 진단검사 후 응급실 진입

- 의료기관 내 외부인 출입 제한, 면회 절차 강화 등 방문객 관리도 차질없이 이루어지도록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 둘째, 의료기관 내 감염 예방을 강화한다.

- 의심환자 조기 발견을 위해, 내원 환자의 코로나19 발생지역 방문력, 확진자 접촉력 등 정보를 의료기관에 지속 제공해 나간다.

* 수진자조회시스템, 해외여행력정보제공프로그램(ITS), 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DUR) 등을 통해 제공

- 또한, 전신보호복, N95 마스크, 고글 등 방역물품을 수요에 맞게 비축*하고, 국산화를 통해 안정적으로 공급할 계획이다.

* 전신보호복 월 200만개 구입(~6월), 이후 월 50~100만개 구입

- 모든 입원환자 진료 시 예방수칙*을 적용하여 확인되지 않은 감염원 으로부터 의료인력을 보호하는 등 감염예방 수칙 적용을 강화하고,

* 손 위생, 개인보호구 착용, 물품과 환경소독 등 감염 전파 차단 수칙

- 의료기관 종류별·행위별로 세분화된 감염예방 수칙에 대한 현장 적용 점검도구(키트)를 제작·배포한다.

- 선별진료소, 확진자 치료기관, 국민안심병원 등에는 감염을 최소화할 수 있는 지침을 마련·적용한다.

- 선별진료소에서 의료인력이 잠재적 확진자와 접촉하는 시간과 범위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동선·구조에 대한 표준 모델*과 운영지침을 마련·적용한다.

* 승차 진료(드라이브 스루) 등 접촉을 줄일 수 있는 다양한 모델 운영

- 감염병 전담병원, 생활치료센터 등 확진자 치료기관 내에 환자와 의료인 동선이 구분된 안전지대(safe zone)를 확보하고 일반병실을 음압병실로 활용할 수 있도록 이동형 음압기를 지속 지원*한다.

* 60개 의료기관, 이동형음압기 977대 신규구입 지원(2.20~3.18)

- 코로나19 감염 불안을 덜고, 보다 안심하고 진료 받을 수 있도록 '국민안심병원' 지정(339개, 3.31)을 지속 확대하고 감염 예방 등 사후관리도 철저히 해나갈 계획이다.

- 의료인 감염이 발생하지 않도록 추진하면서, 진료 과정에서 감염 발생 시, 중증도에 따른 최선의 치료를 해나갈 예정이다.

□ 셋째, 의료기관 감염관리 역량을 강화한다.

- 종합병원, 중소·요양·정신병원 등 여건에 맞는 감염 예방 컨설팅과 자문 활동을 추진한다.

- 종합병원의 경우 지역 내 감염병 예방관리 중심병원(33개 이상)과 참여 병원(220개 이상)을 연계*한 컨설팅과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환경 개선이 이루어지도록 추진한다.

* 감염병 예방관리 중심병원에서 참여 병원(7~15개소) 관리 및 컨설팅

- 중소·요양·정신병원의 감염 예방을 위해 지역별 감염병 전문가 문단을 구성하고 감염관리 역량이 취약한 의료기관에는 1:1 감염관리 자문을 추진해 나간다.

* 요양병원 종사자 발열 여부를 매일 확인, 감염예방관리료 한시지원 (3.24~)

- 선별진료소와 확진자 치료기관을 대상으로 감염예방 관리 특별교육과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의료인 대상으로 감염예방 교육을 실시하며 이를 보수교육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 앞으로 의료기관 종사자 감염 실태와 감염예방 관리방안 추진상황을 점검하여, 추가적인 보완·강화방안을 수립할 예정이다.

2 해외입국 자가격리 이탈자 관리 강화방안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해외입국자에 대한 자가격리 이탈자 관리 강화방안을 마련하고 논의하였다.
- 지난 4월 1일부터 전세계 입국자를 대상으로 자가격리가 확대됨에 따라 지자체의 자가격리자 관리부담이 커지고, 지정된 장소를 무단 이탈하는 사례도 늘어나고 있다.
- 이에 정부에서는 해외입국자를 통한 지역사회 감염을 차단하기 위해 자가격리 이탈자에 대한 관리 강화 방안을 시행한다.

- 먼저, 'GIS(지리정보시스템) 통합상황판'을 통해 '무단 이탈자 다중 감시체계'를 구축하여 운영할 계획이다.
 - 해외입국자의 스마트폰에 설치된 자가격리 안전보호앱과 GIS 통합 상황판을 활용하여 이탈 여부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한다.
 - 중대본 및 각 시·도, 시·군·구에서는 별도의 전담조직을 운영하여 3중으로 24시간 감시체계를 유지한다.
 - 만약 이탈 의심이 드는 경우, 전담공무원에게 즉시 연락하여 위치를 확인하고 경찰과 합동으로 현장을 확인한다. 무단 이탈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고발 조치 등이 이루어진다.
- 한편, 스마트폰 위치정보를 기반으로 작동하는 자가격리 앱의 특성을 역이용하여 스마트폰을 격리장소에 두고 몰래 이탈하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하였다.
 - * (사례) 전북 군산, 해외입국자 3명이 스마트폰을 소지하지 않은 채 이탈(4.3. 19시) → 이탈 현장확인(경찰·보건소, 23시경) → 법무부에 위반사실 통보
 - 이 같은 경우를 막기 위해 일부 지방자치단체와 경찰서가 실시하던 불시점검을 전국으로 확대하여 주 2회 실시한다.
 - 자가격리 앱상 이탈 이력이 있는 사람이나 앱 미설치자를 중심으로 사전통지 없이 자가격리 이탈 여부를 점검한다.
 - 이 외에도 「안전신문고」와 지자체 신고센터를 통한 '이탈자 주민 신고제'를 운영한다.
- 마지막으로 정당한 사유가 없는 무단 이탈자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정 처리할 계획이다.

○ 무단 이탈은 즉시 고발토록 하고, 이탈자에게는 방역 비용 및 손실 비용 등에 대한 손해배상도 병행하여 청구한다. 또한, 긴급재난 지원금과 생활지원비 지급 대상에서도 원천 배제된다.

○ 또한 4월 5일부터는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자가격리 위반 시 처벌 조항이 강화되어 자가격리 위반 시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 앞으로도 정부는 해외입국자에 대한 자가격리 관리를 철저히 해 나갈 예정이다.

- < 불임 > 1. 국민 여러분께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2. 코로나19 보도 준칙 (한국기자협회)
3. 코로나19 심각단계 행동수칙

- < 홍보자료 별첨 > 1. 코로나19 예방수칙
2. 코로나19 의료기관 수칙
3. <입국자> 코로나19 예방주의 안내
4. 자가격리 대상자 및 가족·동거인 생활수칙
5. 자가격리 환자 생활수칙
6. <일반 국민> 코로나19 스트레스 대처방법
7. <확진자> 코로나19 스트레스 대처방법
8. <격리자> 코로나19 스트레스 대처방법
9. 마스크 착용법
10. 마음 가까이 두기 홍보자료
11. 강도 높은 사회적 거리 두기 홍보자료

국민 여러분께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코로나19 관련, 현상 의료진 등에 대해 사실이 아닌 내용을 유포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는 방역당국에 대한 국민과 의료진의 신뢰를 저해하여 코로나19의 효과적인 전파 차단을 어렵게 합니다.

지금은 모두가 힘을 모아 감염병 확산 차단에 집중해야 할 시기입니다.
국민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 코로나19 의료진 관련 >

중요일부

2020년 04월 01일 수요일 030면 사설/칼럼

‘코로나 영웅’ 의료진을 이토록 홀대해도 되는가

정부의 감염원 위입 차단 실패와 종교 집단 대규모 감염이라는 악재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 확산이 억제된 것은 사회적 거리 두기에 적극적으로 동참한 시민, 세계 최고 수준의 의료기관·의료진 덕분이다. 특히 감염 위험 속에서도 몸을 사리지 않는 의사-간호사의 헌신적 노력이 수많은 목숨을 구했다. 한국의 코로나19 치명률은 1.7%로 미국과 유럽에 비해서도 현저히 낮다.

오만을 거듭한 정부가 그나마 사태를 진정시킨 의료진에 큰절을 해도 모자랄 판인데 그들의 여장을 무너뜨리는 일을 연거푸 하고 있다. “방역 모범국” 운운하며 자전인수식 자화자찬을 하는 데 정신이 팔려 나라를 구한 이들을 위해 고마움조차 제대로 표현하지 못하는 정부가 안타깝기 그지없다.

최근의 수당 논란은 의료인에 허탈함을 안겼다. 정부는 임시 선별진료소(드라이브 스루 진료소)에서 봉사하는 의료진에는 위험수당을 제공하지 않았다. 보건복지부는 확진자를 대면하는 의료진과 달리 크게 위험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런 정황을 보면 판사가 하루라도 임시 선별진료소에서 의심 증상이 있는 방문자의 목과 코에서 검체를 채취해 보라. '별로 위험하지 않다'는 말이나 겠나. 정부의 무성의한 행정이지 않은 의료진의 몰과

마음을 더욱 무겁게 한다.

박능후 부총리(왼쪽)는 의료인들 마스크 보급을 돕고
 의료 물품이 부족하다며 의료인들 호소에 “쌍자고
 그러고 해서 그렇다”고 말했다. 그 후식과 일부 의
 사는 보복하듯 의료인 대신 수간호사를 공격한 것.
 정부는 보 의료인에게 집단감염이 발생하면 수
 술실장 징계를하겠다고도 언급했었다. 때때로 수
 술실 17세 소년에게도 코로나19 양성판정을 입 한채
 그 옆 입원 자들을 데리고 나옴 자까지 잘못됐다
 때 병원 전사실 때를 떠올려 지시했다. 철저한 입 및
 있다. 도주자라는 못할마장정 쪽을 꺼려 들어사
 되었다. 그 때의 의사들은 “나서 다라고 오수하
 가 사장이 좋아지 사되래 군현하든 들은 모습이
 전래의 비정장들에게 누른쪽 씌운 무능한 주전 관
 리를 연상하게 되고 지적했다.

유럽 상황에서 보듯 의료기관과 의료진이 무너지면 속수무책이다. 이미 120여 명이 감염됐지만 막대한 현금을 지키는 의료진에 경의를 표하고 마땅한 보상을 해야 한다. 진전·안상에 격리된 고인들이 받았던 ‘청와대 도시락’과 질병관리본부에 간 ‘청와대 밥차’가 의료진에 답도했다는 이야기는 들리지 않는다. 먼저 격려와 감사의 뜻을 표해야 할 대상이 과연 누구인가.

▲ 정부가 코로나19 관련 의료진을 홀대한다는 내용의 보도 발생(중앙일보 4.1)


1) "임시선별진료소에서 봉사하는 의료진에게
위험수당 미제공" → 사실 아님

- ☞ 모든 민간 인력에게 위험수당은 지급됨
- ☞ 임시선별진료소 파견 의료인의 보상기준에도 '주휴 및 위험수당 등 각종 수당 포함' 명시

2) "의사들이 보호복이 없어 수술 가운을 착용" → 사실 아님

- ☞ 방역용 보호복 부족을 이유로 수술 가운을 입었던 사례는 파악된 바 없음
- ☞ 현재 방역용 보호복 수급에는 어려움이 없음

3) “의료기관에서 집단감염이 발생하면 손해배상 청구를 하겠다고 엄포” → 사실 아님

-  일부 행정명령을 위반하는 요양병원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 검토 계획을 밝힌 적은 있으나
손해배상 및 구상권 청구는 명백한 위법사실이 있는 경우에만 적용되며,
대부분의 요양병원은 이에 해당되지 않음

4) "폐렴으로 사망한 17세 소년에게서 코로나19 양성 반응이 나오자 병원 검사실 폐쇄 지시"
→ 사실 아님

- ▶ 영남대학교병원이 실시 검사 결과, **지속적 음성 판정 이후 마지막 실시 검사결과 ‘미결정’**
- ▶ 해당 병원 **검사실 폐쇄**를 지시한 **적은 없으며**, 오염가능성 확인과 정도관리 지원 위해 **코로나19 진단검사만을 잠정 중단 요청**
- ▶ 이후 **일본대한진단검사의학회 공동조사**를 통해 **일시적·일부 오염** 확인 후 **진단검사 재개**

< 외국인 검진·치료비 지원 관련 >

안국경제

이학영 칼럼



상임논설고문

“한국 가면 검사·치료 다 공짜”
외국인들에게 ‘코로나 봉’
국민은 ‘해외출입 간헐자택’ 비상

표 10-9. 임의, 임의

누구를 위한 정부인가

‘글로벌 호구’ 방역외교, 더는 안 된다

하기에도 힘입고 의외로도 지쳤다.” 백영권 이사장은 “다른 나라에는 이미 한국을 막았으니 상호주의에 입각해 금지하라는 것, 외국인이 지갑없는 의류의 국내로 들어오라고 한다”는 말로, 예외의 또 다른 기본인 상호주의(principle of reciprocity)를 정부와 여러 민간인 의사 앞에서 듣게 된 것, 이게 한국 외교의 현실이다.

[illegible]

한 미국에 대해서까지 일국적임을 조치를 하기로 한 이유다.

실활이 이전에도 한국 정부만 일국적 한 조치에 등을 돌리고 있다. ‘갈릴원 차 단’ 요구가 빚발치자 동원한 조치가 ‘모 든 해외 인구가 2주간 의무격리’에 결단

한 것은 영국인과 독일인이 확인 판결을 받은 상태에서도 이곳을 탈북할 정도로 외국 연 구관에서도 어쩔 줄 모르고 있다. 무엇을 위한 외교, 누구를 위한 정부인지 묻 게 하는 일이 너무나 많이 벌어지고 있다.

news@tena.com

이제 우리는 일본에서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를 물어볼 수 있다. 정부 차원에서 가장 중요한 과제는 경제를 되살리고, 특히 수출을 늘리는 것이다. 그러나 경제에 있어서는 외국에 의존하고 있다. 우리는 한 해에 4백만 개짜리, 때때로 5백만 개짜리 자동차를 수입하고 있다. 그러나 그 수입이 없다면 내수에만 의존하는 것은, 그나마도 불가능하지 않다는 것이다. 이것이 우리의 목표이다.

우리는 또한 일본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보건에 있어서는 영아를 돌보는 것이다. 4백만 명이 태어났는데, 1만 개 정도의 어린이집이 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늘려야 할 수 있다. 한국에서는 이제 바비 돌보는 시설이 1만 개 정도 있다. 그러나 일본에서는 4만 개 정도 있다. 그래서 우리는 일본에서 돌봄을 배우고 있다. 그리고 우리는 일본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어린이를 돌보는 것이다.

그러나 일본에서는 20년, 30년은 물론 40년, 50년, 60년, 70년, 80년, 90년, 100년은 훨씬 더 오래 살아가고 있다. 한국에서는 이제 평균 수명이 75세 정도이다. 그러나 일본에서는 80세 정도이다. 그리고 우리는 일본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어린이를 돌보는 것이다.

▲ **외국인에게 검진·치료비를 무료로 지원하는**
국가가 우리나라뿐이라는 내용의 보도 발생
 (한국경제, 4.1)

- ▶ 감염병에 대한 외국인 검진·치료비 지원은 환자 조기 발견을 통해 국민·공동체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
- ▶ 이는 국제보건규약(IHR) 제40조에 따라 모든 국가에 적용되며, 영국·호주·스웨덴·노르웨이 등 많은 국가들에서도 지원 중

붙임2

코로나19 보도 준칙 (한국기자협회)

□ 한국기자협회 「코로나19 보도 준칙」 (2020.2.21.)

- 다음은 2020년 2월 21일, 한국기자협회에서 제정한 「코로나19 보도 준칙」의 주요 내용으로, 이번 코로나19 관련 보도 시에 참고해주시길 바랍니다.

1. 코로나19를 취재 및 보도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기자 스스로의 안전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를 위해 회사 측과 상의해 마스크 등 안전장비를 충분히 지급 받아야 합니다.

2. 세계보건기구(WHO)의 공식 병명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입니다. 보도 및 방송에서는 공식 병명을 사용해 주십시오. 세계보건기구는 2015년 표준 지침을 통해 지리적 위치, 사람 이름, 동물·식품 종류, 문화, 주민·국민, 산업, 직업군 등이 포함된 병명을 사용하지 말 것을 권고한 바 있습니다. 지역명을 넣은 '○○페렴' 등의 사용은 국가·종교·민족 등 특정 집단을 향한 오해나 억측을 낳고, 혐오 및 인종 차별적 정서를 불러일으킬 수 있으며, 과도한 공포를 유발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입니다.

3. 유튜브 등을 통해 급속히 퍼지고 있는 코로나19와 관련한 허위 조작 정보의 재인용 보도 및 방송 또는 인권 침해 및 사회적 혐오·불안 등을 유발할 수 있는 자극적 보도 및 방송 자제하고, 이를 요구하는 지시가 이뤄지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 참조 : 한국기자협회 인권보도준칙, 신문윤리실천요강 관련 조항

2020년 2월 21일

한 국 기 자 협 회

붙임3

코로나19 심각단계 행동수칙

[일반국민]

1. 흐르는 물에 비누로 손을 꼼꼼하게 씻으세요.
2. 기침이나 재채기할 때 옷소매로 입과 코를 가리세요.
3. 씻지 않은 손으로 눈·코·입을 만지지 마십시오.
4. 의료기관 방문 시 마스크를 착용하세요.
5. 사람 많은 곳에 방문을 자제하여 주세요.
6. 발열, 호흡기증상(기침이나 목아픔 등)이 있는 사람과 접촉을 피하세요.

[고위험군] : 임신부, 65세 이상, 만성질환자*

* 당뇨병, 심부전, 만성호흡기 질환(천식, 만성폐쇄성질환), 신부전, 암환자 등

1. 많은 사람이 모이는 장소에 가지 마십시오.
2. 불가피하게 의료기관 방문이나 외출시에는 마스크를 착용하십시오.

[유증상자] : 발열이나 호흡기증상(기침이나 목아픔 등)이 나타난 사람

1. 등교나 출근을 하지 마시고 외출을 자제해 주십시오.
2. 집에서 충분히 휴식을 취하시고 3-4일 경과를 관찰하여 주십시오.
3. 38도 이상 고열이 지속되거나 증상이 심해지면 ① 콜센터(☎1339, ☎지역번호+120), 보건소로 문의하거나 ② 선별진료소를 우선 방문하여 진료를 받으세요.
4. 의료기관 방문시 자기 차량을 이용하고 마스크를 착용하십시오.
5. 진료 의료진에게 해외 여행력 및 호흡기 증상자와 접촉 여부를 알려주세요.

[국내 코로나19 유행지역]

1. 외출 및 타지역 방문을 자제하여 주십시오.
2. 격리자는 의료인, 방역당국의 지시를 철저히 따라 주십시오.